

『율리시즈』: 배설적 창조의 미학*

“예술이란 감각적인 소재나 지성적인 소재를 심미적 목적을 위하여 인간이
배열하는 것이다”(CW 145; P 207).

진 선 주

1. “요강속의신”(goddinpotty)(FW 59. 12)

조이스는 『율리시즈』의 주인공 레오폴드 블룸이 아침에 뒷간으로 갈 때 머릿속을 스친 바 있는 생각 그대로 배설물은 오물을 정화하는 세척력과 함께 풍요를 보장하는 창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정원 전체가 거름 부족이군, 땅이 온통 메마른 딱지 투성이니 말이야 . . . 똥이 들어가지 않으면 땅이란 죄다 저 꼴이 되고 말거든 . . . 옥토라, 그건 대체 어떤 땅일까? 옆집 마당의 암탉들, 암탉 똥이 썩 좋은 일류 비료지.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비료는 쇠똥거름이거든, 특히 콩깨묵을 먹여 키운 가축 거름을 당할 것이 없지 . . . 정원을 똥똥 다시 개간해야지”(U 4. 476-83). 황폐한 정원을 옥토로 바꾸는 데는 배설물이 “최고”라는 조이스의 소신을 블룸이 대변하는 대목이다. 블룸의 이러한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낮에 공

* 이 글은 줄문 「『율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제임스 조이스 저널』 7-2. 한국 제임스 조이스 학회, 2001년 12월, 73-104의 속편이다. 필자는 거기서 조이스의 배설적 글쓰기는 “한꺼번에 살펴보기에는 지면의 제약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배설물의 창조적 특징과 관련된 문제는 고를 달리하여 별도의 글에서 따로 다루겠다”(76)고 약속하였다.

동묘지에 가서도 역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 “식물원이 바로 저기에 있군, 땅속으로 스며든 피가 새 생명을 키우지 . . . 사람마다 제 값을 하나 봐.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는 양반이나 미식가의 비대한 시체는 과수원에 엄청나게 좋으렸다. . . 이 묘지 땅은 시체거름, 골질, 살덩이, 손톱으로 틀림없이 지극히 비옥할 거야”(U 6. 770-77).

배설물(또는 노폐물)의 비료로서의 성능을 중시하는 조이스는 배설물의 물리적 역할에다 “심미적 목적”을 부여하여 그의 인체의 서사시인 『울리시즈』를 창작하는 데 요긴한 서술의 원리로 삼으려 하였다. 『초상』을 쓸 당시부터 “배설물이나 아이나 이(louse)는 왜 예술 작품이 아닌가?”하는 문제로 부심(P 214)하던 그는 뒤에 “그들이 생성되는 과정은 자연적일 뿐 예술성이 없다. 그들의 목적은 심미적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없음”(CW 146)을 깨닫고 『울리시즈』에서부터는 거기다 탐미적 목적의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그가 일찍이 수립한 예술의 정의 그대로 어떠한 소재이든 거기에 심미적 목적을 붙여넣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작가가 배설만 잘 하면 배설물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항문단계에서 사람은 배설물은 외형상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예술 활동을 통하여 그 탈출구를 찾으려 한다는 프로이트의 승화(sublimation) 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조이스의 이 배설적 창조의 미학은 『피네건의 경야』(*Finnegans Wake*)에 나오는 “godinpotty”(FW 59. 12)라는 낱말 속에 그 의미가 집약적으로 암시되어 있다. “sprangflowers . . . a viridable godinpotty for the reinworms”(FW 59. 11-12)라는 구절 속에 든 이 혼성어는 청각적으로 우선 에덴 동산의 가든파티(“garden party”)를 연상시킨다. “godinpotty”는 가든파티의 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에 깃들인 함축적인 뜻이다. God + in + potty(요강; 변기; 화장실)로 구성된 이 복합어는 글자 그대로 변기 속에 (창조의) 신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potty”를 화분(flower pot)으로 보더라도 의미는 마찬가지다. 화분에도 (창조의 힘을 가진) 신이 들어있다는 뜻이다. 빈슨트 쉹(Vincent J. Cheng)에 의하면, 이 낱말 속에는 에덴 동산을 그 기원으로 하는 인간의 모든 정원(“goddin”: garden)은 배설물 거름(“inpotty”: in chamber potty)과 부패한 시체(“cropse of our seedfather”)(FW 55. 08)의 힘으로 풍요와 재생(renewal)이 유지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 혼성어가 든 문

맥을 묶어 해석하면, 화분을 포함한 아름다운 꽃(“sprangflowers”: spring flowers)과 참다운(“viridable”: veritable; viridian=green) 정원은 변기와 구더기(또는 벌레)(“reinworms”: G. *Regenwurm*, earthworm: G. *rein*, pure, ringworm)의 부패를 통하여 재생이 계속된다는 의미가 가능하므로 이 구절 속에는 작가가 신처럼 창조력을 발휘하기만 하면 배설물을 소재로 아름다운 예술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조이스의 의도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이다(91-92). 그러면서 쉘은 조이스의 이러한 배설적 창조의 미학을 “조이스 작품세계의 중추적인 개념”(90)이라고까지 말한다.

이 글에서는 조이스가 『율리시즈』에서 배설물을 통하여 피우려는 꽃, 즉 심미적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 한다. 이러한 시도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배설물과 배설행위에 대한 반응을 세밀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율리시즈』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텔레마키아」(Telemachia), 「오딧세이」(Odyssey), 「노스토스」(Nostos)가 그것이다. 「텔레마키아」부(1-3장)는 『오딧세이』의 텔레마코스(Telemachus)에 상응하는 스티븐 데달러스의 활동상을 주로 다루고, 「오딧세이」부(4-15장)는 오딧세우스(Odysseus)에 대응하는 레오폴드 블룸의 생활상을 주로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노스토스」부(16-18장)는 페넬로페(Penelope)에 조응하는 블룸의 아내 몰리의 내면 세계가 그 주축이 되어 있다. 이 글은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내용을 전개하기로 한다.

2. “자세히 들어봐, 네 마디의 물결의 언어를 . . .”(U 3. 456-57)

전쟁에 나간 아버지를 찾는 텔레마코스에 해당하는 『율리시즈』의 스티븐 데달러스는 이 텍스트의 첫 장인 「텔레마코스」에서 캠핑을 같이 하는 벅 멀리건(Buck Mulligan)으로부터 “오, 아버지 킨치의 망령이여!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야벳이여!”(U 1. 561)라는 조롱투의 말을 듣는다. 스티븐이 아버지 사이먼(Simon Dedalus)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생물학적인 아버지 대신 정신적인 아버지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두고 신학적인 함의를 섞어 멀리건이 놀리는 이 말에 스티븐은 마음 속으로 이단 신학자 아리우스(Arius: c. 256-336)의 이름을 잠시 생각한다. “. . . 성자와 성부의 동체

론(*consubstantiality*)에 대항하여 일평생을 싸운 아리우스 . . .”(U 1. 657-58). 스티븐이 여기서 반골적인 신학자를 떠올리는 것은 『초상』에서 크랜리가 스티븐에게 “자네의 마음은 자네 입으로 믿지 않는다는 종교문제로 과포화상태로구나”(P 240)라면서 놀란 바와 같이 그의 의식 세계는 신학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대학입학을 전후하여 교회에는 완전히 발을 꿰었지만 대학 졸업 2년이 지난 22세의 청년으로 『율리시즈』에 다시 등장한 오늘에도 그가 받은 예수회의 교육의 편린은 조금도 변함 없이 그의 골수 깊이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스티븐은 “찬탈자”(U 1. 744)라는 이유로 익살꾼 친구 멀리건과 결별하고 캠핑을 같이 하던 요새탑(Martello Tower)을 나온다.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뒤 교원직 마저 버리고 「프로테우스」장에서 혼자 해안을 산책한다. 그는 모래밭을 거닐며 다시 아리우스를 머리에 떠올린다. 이때의 아리우스의 최후의 모습은 둔부에 배설물이 잔뜩 묻어있다. 원래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요 사제이던 아리우스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달리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가 아니라 그 위상이 각각 다르다는 이론을 폈다. 성부인 신이 먼저 그리스도(성자)를 창조하고, 신의 피조물인 그리스도가 성령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의 피조물인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이었다. 성자는 성부와 위상이 같지 못하고 성령은 성자와 위상이 같지 못하다는 그의 주장은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325)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 그는 파문을 당하였다. 이때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의 이단설의 파급을 막으면서 삼위일체론의 도전을 봉쇄하기 위하여 니케아 신경(Nicene Creed)에다 “동체”(consubstantial)라는 용어를 명시하기 시작하였다(Gifford 26). 유배생활을 하던 아리우스는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정통적인 신앙고백을 하고 성체 성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고 콘스탄티노플로 가던 도중 화장실에서 변을 보다 장출혈을 일으켜 황사하였다. 아리우스가 공중변소에서 죽자 교리에 충실한 신학자들은 그가 숨을 거둔 변소라는 장소와, 명예 회복을 불과 하루 앞둔 객사의 시점과 배설물 투성이의 운명직전의 행태는 모두가 신의 불쾌감의 증거라면서 그의 이단설을 다시 매도하기 위하여 이를 악선전하는 데 열을 올렸다(Gifford 47). 스티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리우스의 모습은 전통적인 신학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다시 준 바로 그의 최후의 순간이다.

성부와 성자는 동체라는 설이 과연 신성불가침의 영원의 법칙이란 말인가? 결론을 내리려고 고심하던 그리운 아리우스는 어디 있는가? 그는 평생을 두고 삼위일체성변화성모마리아송가유대인강타설(contransmagnificandjewbangtantalinity)을 부인하며 투쟁을 전개하였지. 비운의 이단파의 비조였지! 그리스의 어느 공중 변소에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 안락사라던가. 주교좌(座)에서 쫓겨난 홀아비였지만 구슬 장식을 한 주교관(主敎冠)에다 사교장(司敎杖)을 들고, 사교좌(司敎座)에 정좌한 자세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 사제복을 위로 건어 올렸기에 똥이 묻은 궁둥이가 환히 보이도록 드러내어 놓은 채. (U 3. 50-54)

스티븐의 명상 속에 나타나는 아리우스의 둔부에 철갑이 된 배설물은 죄의 문제와 결부된다. 승화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프로이트는 배설물을 먼저 혐오감, 수치, 죽음, 죄악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장(site)으로 보았(44)거니와 전통적인 사제들의 인식과 같이 아리우스의 형사는 불복종에 대한 신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아리우스의 이단에 동조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는 아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이단적인 기질이 분명히 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해달라는 운명 직전의 선비(先妣)의 애원을 거부한 사실을 아는 멀리건으로부터 아침에 심한 비난을 받은 바도 있다. “자네에겐 사악한 그 무엇이 있어”(U 1. 94)라느니, “자네에겐 저주받을 퀘변가의 기질이 있기 때문이야, 엉뚱하게 잘못 주입된 그 기질 말이야”(U 1. 198-99)느니 하는. 스티븐은 현재 기도거부의 잘잘못을 떠나 망모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U 1. 481)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가 이날 오전 두 번이나 아리우스를 떠올리는 것도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무관할 수 없다. 그도 교회의 가르침의 잣대로 보면 아리우스처럼 이단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역설적이게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그의 이단성을 결코 후회하는 것은 아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선비가 회개하라고 조를 때 그가 마음 속으로 “아니요, 어머니! 저를 그냥 내버려주세요”(U 1. 279)라고 외치는 바와 같이 『초상』의 끝에서 건기로 결심한 사탄적인 불복종(non serviam)의 길에는 변함이 없다. 그는 이단자의 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아리우스의 최후의 배변 장면의 회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배설물은 죄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아는 듯하다.

배설물의 종교적 의미는 『초상』의 아날 신부의 피정 강론 내용 속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스티븐도 참석한 바 있는 벨비디어 칼리지의 피정 행사에서 아날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지옥을 “악취가 진동하는 감옥”(P 119)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의 온갖 오물이, 세상의 온갖 쓰레기와 찌꺼기가 거대한 구린내 나는 시궁창을 향해 흐르듯이 거기를 흘러간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저주받은 자들의 시체가 또한 너무나도 살인적인 악취를 내뿜어서 성 보나벤투라(saint Bonaventure)의 말대로, 하나의 시체만으로도 온 세상을 오염시키기에 충분하리라”면서 “지옥의 공기가 얼마나 더럽겠는가를 상상해보라”(P 120)고 목청을 높였다. 스티븐은 이 때 들은 아날 신부의 열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신부는 한마디로, 오물의 악취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지옥이 바로 “악마와 추락한 영혼들의 거처”(P 119)라는 것이었다.

스티븐은 「이타카」장에서 밤중에 따라 간 불룸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불룸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의 집을 나오기 직전 그의 집 안마당에서 불룸과 함께 소변을 본다. “스티븐의 암시와 불룸의 부추김에 따라 양인은 스티븐이 먼저 불룸은 그 뒤를 따라 반음영 속에서 소변을 보았다, 그들은 바짝 붙어 서서, 배뇨 기관은 손으로 막아 서로 보이지 않게 가리고, 시선은 불룸의 시선이 먼저 스티븐의 시선이 그 뒤를 따라 투영된 밝기는 하나 희미하게 밝은 그림자 쪽으로 위를 향한 채”(U 17. 1186-90). 이 장의 서술자는 그 특유의 교리문답체를 통하여 이들이 소변을 하면서 상대방의 비뇨기(음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는가를 묻는다. “보이지는 않으나 소리는 들리는 상대방의 음경에 관하여 그들에겐 서로 어떤 다른 문제들이 각각 제기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렇다.

불룸에겐: 흥분성의 문제, 발기(勃起)의 문제, 경직성의 문제, 반동성의 문제, 치수의 문제, 위생상태의 문제, 거옷의 문제가.

스티븐에겐: 할례받은 예수(할례제 1월 1일은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례하고 불필요한 모든 세속사를 삼가해야하는 휴일임)의 성직특권적인 완전성의 문제가, 그리고 현재 칼카타에 보존되어있는 신성 로마 가톨릭 사도 성당에서 세속적인 혼례 반지로 간주하는 신성한 (예수의) 음경 표피는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와 같은) 성스러운 인간에 대한 존경의 대상인가 아니면 모발과 발톱과 같은 신성한 자연발생물의 절제(切除)에 부합되는 절대적인 신에 대한 최고도의 존경의 대상인지 하는 문제가. (U 17. 1199-1209)

블룸은 스티븐의 음경에 대하여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를 궁금해하는 반면에 스티븐은 블룸의 그것에 대하여 지극히 신학적인 문제를 궁금해한다. 전자는 스티븐의 비뇨기의 발기상태와 그 크기, 청결상태 및 음모가 얼마나 나 있을까하는 생리적인 문제가 궁금하지만 후자는 블룸의 할례를 둘러싼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의 정통적인 해석이 궁금하다. 그의 의문인즉, 예수가 교회의 주장대로 완전무결한 몸으로 태어났다면 왜 할례를 할 필요가 있었으며, 예수의 절제된 음경의 표피는 단순히 인간의 몸에 대한 존경의 대상이나 아니면 신적 존재에 대한 존경의 대상이나 하는 문제다.

여기서 우리는 블룸과 스티븐의 성격적인 차이의 일면을 눈치챌 수 있다. 전자가 실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라면 후자는 추상적 문제에 집착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대조적인 성격은 이 글이 전개됨에 따라 점점 뚜렷해질 것이므로 이 문제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한다.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스티븐은 신학적인 문제로 머리가 꼭 차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아리우스의 배설물을 통하여 교리상의 죄를 생각하였듯이 배설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이 배뇨장면을 통하여서도 신학적인 문제의 해석에 매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스티븐의 배뇨행위는 밤늦게 블룸의 집에서 한 것이 전부일 리는 없다. 그는 이날 오줌을 몇 번 누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길은 없으나 이 날의 최초의 배뇨행위는 그의 샌디마운트 해변의 산책 장면에서 확인된다. “모든 사물의 기호를 읽기 위하여”(U 3. 2) 아리우스의 변소에서의 죽음을 비롯하여 자신의 외로운 처지 등을 명상하면서 산책을 하던 그는 해변을 떠나기에 앞서 코크레이크에서 소변을 한다. “코크레이크로부터 길다란 울가미 밧줄을 이루어 오줌이 흥건하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초록빛황금색의 모래 석호(瀉湖)를 뒤덮으며, 솟으며, 흐르며 하면서.” 이 소변 장면은 그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한다. 그는 비록 이단자적인 죄책감에 허덕이고 있긴 하지만 그가 추구하는 목표만은 예술의 창조에 있다. 그는 소변을 보면서 이런 생각에 잠긴다.

내 볼푸레나무 지팡이도 떠내려갈까 보다. 두고 봐야지. 아니야 오줌살은 계속 흘러갈 거야, 알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소용돌이도 치면서 흘러갈 거

야.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으련만. 자세히 들어봐. 네 마디의 물결의 언어를. 줄줄 줄줄, 잘잘, 출출하는. 바다뱀들, 뒷발을 딛고 선 말들, 바위들 사이로 흘러가는 격렬한 오줌의 숨소리. 움푹 파인 바위 속에 오줌이 넘친다. 풍덩 소리를 낸다, 싹 쏟아진다, 찰싹 소릴 낸다. 통 속에서 출렁대면서. 그러다 오줌을 다 누자 오줌살은 말을 멈춘다. 그러자 오줌은 소용돌이치며 넓게 퍼져 흐른다 웅덩이 거품을 피우며 활짝 핀 꽃잎처럼 떠돌면서. (U 3. 453-60)

스티븐의 의식의 흐름의 내용은 오줌 살처럼 자연스럽게 음악적이어서 한편의 서정시를 우선 연상케 한다. 그는 이 장면에서 자신의 배뇨행위를 일종의 시의 창작행위와 동일시한다. 그는 이미 『초상』에서 19행 2운 시(villanelle)를 습작한 바 있거니와(P 223-224) 여기 「프로테우스」에서도 소변을 하기 직전에 데이지 교장의 편지를 찢어 바위를 테이블 삼아 시를 지은 바 있다(U 3. 404-407; 437-438). 새로운 언어로 독보적인 문인이 되려는 시인지망새답게 그는 여기서 자신의 오줌 살을 “물결의 언어”라고 생각한다. 물결의 언어라 함은 소변이 만들어내는 유동적인 유연한 시어를 뜻한다. 따라서, 소변이 시적 언어를 창조한다는 스티븐의 발상은 생산력을 지닌 배설물을 토대로 예술가가 창조의 신처럼 역량을 발휘하기만 하면 예술품을 빚을 수 있다는 조이스의 예술창조론의 대변이 아닐 수 없다.

스티븐은 여기서 언어의 연금술사로서의 모습을 또한 보여준다. 자신의 소변을 새로운 유연한 언어로 파악한 그는 이 언어를 프로테우스의 변신처럼 다양한 형태로 변용시킨다. “오줌의 숨소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체적인 요소를 액체적인 요소로 변용시키는가 하면, “바다뱀”과 “뒷발을 딛고 선 말들”이라는 말에서처럼 오줌을 동물로 변용시켜 청각적인 요소에다 시각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는 바닷물과 어우러져 흘러가는 그의 오줌 살을 지켜보면서 소변의 변용을 통하여 소리와 모양을 동시에 창조한다. 그의 배뇨행위가 끝난 뒤에도 그의 몸에서 나온 오줌 살은 창조행위를 그치지 않는다. “활짝 핀 꽃잎”이 되어 “떠돌면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다.

소변을 마친 그는 샌디마운트 해변을 떠나면서 코에서 떼어낸 코막지를 바위 위에 붙인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그밖에 보고싶은 사람은 실컷 보라지. 뒤에. 누군가가 여기에 올지도 모르니까”(U 3. 501-02). 「텔레마키아」부를 마감하는 스티븐의 이 속말은 『율리시즈』가 여기서 끝나지 않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뒤에 거기에 불륨이 나타날 가능성의 예언 같기도 하다.

지금까지 스티븐의 배설물과 배설행위에 대한 의식 상태를 살펴보았다. 배설물에 대한 그의 반응은 일단 전통적인 가톨릭의 가르침과 인식을 같이 한다. 오물은 신의 노여움의 징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를 죄악의 상징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해변의 배뇨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 창조의 행위로 승화시키려 한다. 그는 비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지만 예술의 창조 행위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려 한다. 따라서 그의 배설 작용과 관련된 문제는 그의 현재의 고뇌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꺼번에 일러주는 예술적 감광판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스티븐을 둘러싼 배설적 이미지는 그가 어떤 인물인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예술적 장치라 할 것이다.

3. “그는 통통하게 살찐 무르익은 . . . 그녀의 델론형의 엉덩이에 키스했다”(U 17. 2241).

「오딧세이」부의 시작이자 『울리시즈』의 4번째 장에 해당하는 「칼립소」에 피소드에서부터 레오폴드 불륨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신문사의 광고사원으로 근무하는 38세의 평범한 시민이다. 그의 에피소드는 그의 식성(食性) 이야기로 시작된다. “레오폴드 불륨씨는 네발짐승과 날짐승의 내장 요리를 즐겨 먹었다. 그는 진한 닭 내장 수프, 맛이 그윽한 모래주머니, 짧게 썬 심장 구이, 빵껍질 부스러기를 입혀 기름에 튀긴 얇은 간 조각. 기름에 튀긴 암대구 알을 좋아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쫄쫄한 오줌냄새가 입천장을 톡 쏘는 양고기 콩팥 구이를 가장 좋아했다”(U 4. 1-5). 오줌냄새를 풍기는 육류 내장 구이를 좋아하는 그의 입맛으로 보아 그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보통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불륨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길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뒤 부인 몰리 대신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푸주에 가서 돼지 콩팥을 사온 그는 아침상을 차려 이층의 침실에 아직도 누워있는 아내에게 갖다주고 나서 부엌으로 도로 내려와 혼자 조반을 든다. 프라이를 하다 탄 부위는 가위로 잘라 고양이에게 던져 주면서 자신이 조리한 콩팥구이를 곁들여 맛있게 아침 식사를 한다. “그는 포크에 찌른 콩팥을 입안으로 밀어 넣고 감칠맛 나는 연한 고기 맛을 음미를 하

면서 씹었다. 알맞게 곱혔군. 차 한 모금. 그런 다음 빵을 잘게 썰어서 하나씩 하나씩 육즙에 적서 입안에 넣었다”(U 4. 390-93). 우리는 여기서 블룸이 부인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부엌에서 혼자 식사를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관계가 어딘 모르게 심상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아침을 마친 그는 철지난 주간지를 찾아 들고 측간으로 가서 그것을 읽으면서 대변을 본다. 배변을 하는 그의 기분은 가히 용변의 쾌락이라 할만하다.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그는 주간지(*Titbits*)를 펼쳐 살이 드러난 무릎 위에 올려 놓고 페이지를 넘겼다. 어딘지 모르게 새롭고 편안하군. 크게 서둘 필요가 없어. 좀 천천히 해야지. 텃비츠의 현상 당선작, 매침의 기막힌 솜씨(*Matcham's Masterstroke*)라. 런던의 . . . 필립 보포이씨 작이군. . . 그는 첫 단락(column)을 조용히 읽었다. 항문에 힘을 주면서. 그런 다음 (팔약근을) 풀어주면서도 조이면서 둘째 단락을 시작했다. 그러는 중에, 그는 안간 힘을 써서 대변이 저절로 조용하게 술술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의 약간의 변비 기척이 완전히 가졌는가에 계속 꾸준히 신경을 쓰면서 읽기를 계속했다. 덩어리가 너무 커서 치질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아니야 아무 걱정 없어. 그렇지. 아! 변비엔 완하제 카스카라 사그라다 한 알이면 그만이니까. 인생이란 바로 그런 건지도 몰라. 그 단편은 그를 감동시키거나 자극은 주지 않았지만 무언가 짹짹하고 깔끔한 그 무언은 있어 보였다. 요새는 무엇이냐 인재를 하는 세상이지. 특종 뉴스가 없는 심심한 계절이니까. 그는 자신의 똥덩이에서 솟아오르는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앉은 채, 계속 읽었다. 역시 깔끔하군. . . . 교훈적으로 시작하여 교훈적으로 끝나는군. 손에 손잡고, 재치가 있어. 그는 읽은 것을 되 훑어 보았다. 그는 소변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써서 3파운드 13실링 6펜스의 고료를 받은 보포이씨를 진정으로 부러워했다. (U 4. 500-17)

즐겁게 용변을 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일종의 예술적인 창조행위를 하고 있는지 글자 그대로 배변을 하고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그는 첫 단락을 조용히 읽었다. . . 그런 다음 . . . 둘째 단락을 시작했다”는 말은 그가 변을 보면서 보포이의 현상 당선 작품을 탐독한다는 소린지, 자신이 쓴 배설물 덩어리를 내려다보며 이를 완상한다는 소린지 구별이 쉽지 않다. “3파운드 13실링 6펜스의 현상금을 받은 보포이가 부러워서” 측간을 나오기 직전 “L. M. 블룸씨 부부 합작으로. 평판이 자자할 정도의 단편을 지어내어야지”(U 4. 518-19)

라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을 보면 그의 행위는 예술적 창조 행위와도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끝나고 만다. 그의 생각은 전에 보일란을 두고 물리가 한 적이 있는 말 생각으로 곧 옮겨가버리기 때문이다. “그 보일란이란 자는 부자인가요? 그는 돈이 많다면서요. . . . 불륜과 난네티의 관계와, 에밋의 유언에 대한 불륜의 방귀뀌기 경위를 자세히 알려면 줄문 『『울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89-98쪽을 참고할 것”(U 4. 528-29). 창작의 욕구를 직접 실천하는 야심적인 시인의 꿈을 가진 스티븐과는 달리 그는 글쓰기의 충동을 실천에 옮기는 일이 없다. 그에게는 인분 가공을 포함한 많은 기발한 돈벌이 계획이 있으나(U 17. 1698-1743), 어느 것 하나 실현성 있는 것이 없다(U. 17. 1754). 그의 재테크 계획이 공상으로 끝나듯이 보포이를 능가하는 작품을 써 보겠다는 이 예술적인 충동도 허황하게 사라지고 만다. 하지만, 이 때의 그의 창작의 욕망은 비록 일시적인 충동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프로이트가 말하는 승화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그가 측간으로 가면서 배설물의 역할의 하나는 비료적 기능에 있다고 생각한 바(U 4. 475-83)와 같이, 이 때의 불륜의 대변은 창조와 출산 및 풍요(fertility)와 대등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heng 90).

그러나 위의 예문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불륜이 그의 배변 행위를 즐긴다는 점이다. 그는 괄약근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어딘지 모르게 새롭고 편안한” 기분으로 변을 본다. 자신이 눈 “똥 덩어리에서 솟아오르는 냄새를 맡으면서,” “깔끔한” 현상소설당선작까지 읽으면서 여유 있게 용변을 즐긴다. “크게 서둘 필요가 없어. 좀 천천히 해야지.” 더군다나 변비로 막혔던 항문에서 치질이 걱정될 정도로 큰 “대변 덩어리가 저절로 술술 나오게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쾌변의 낙을 즐긴다고나 할까. 이처럼 배설 작용을 즐기는 것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항문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터커(Lindsey Tucker)가 불륜이 여기서 항문기적 에로티시즘(anal eroticism)을 즐기고 있다(51)고 지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프로이트의 성적 발달 단계 이론에 의하면 크게 구순기, 항문기, 성기기의 세 단계가 있다. 엄마의 젖을 빨거나 무엇을 물어뜯거나 썩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구순기를 지나면 자기의 항문과 관련된 활동, 즉 배설행위에서 쾌감을 맛보는 항문기에 접어든다. 항문기를 넘기면 성기의 자

극, 즉 이성과의 정상적인 성교행위에서 쾌락을 충족시키는 성기기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주장 대로라면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둘이나 낳은 블룸이 항문기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상적인 성기단계에서 항문단계로 퇴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블룸은 딸 밀리에 이어 아들 루디를 낳았으나 낳은 지 11일 만에 잃고 만다. 병약하게 태어난 외아들의 급사에 충격을 받은 그는 성적 관심을 잃고 10년 이상이나 아내와 성관계를 끊고 지낸다. “생물학적 여성의 성기에다 정액을 사출하는 완전한 성교행위는 둘째 (이자 외동아들) 자식이 1893년 12월 29일에 태어나서 태어난 지 11일 만인 1984년 1월 9일에 사망하기까지 5주 전, 그러니까 1893년 11월 27일에 마지막으로 가진 이래로 10년 5개월 18일의 세월이 흘렀다. 이 세월 동안 육체적 교접은 불완전하였으므로 생물학적인 여성의 성기에다 정액을 사출하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었다”(U 17. 2278-84). 독자를 잃은 직후 블룸이 성적 관심마저 상실하고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부인과 육체적으로 단절된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구구하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블룸이 대를 이을 독자의 급사로 입은 정신적인 외상(trauma)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아들의 죽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아들을 더 낳았다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감이 뒤얽혀 있다는 것이다(Schwaber 97; Kiberd 1007). 그러나 그는 아들은 비록 일었지만 장년기의 남성으로서의 성적 욕구만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는 임신의 염려가 없는 변태적인 자기 색정(autoerotism)에 빠져 지낸다(Lowe-Evans 72). 그가 현재 즐기는 성적 탈선 행위로는 수음, 관음증, 님프의 사진을 오려 벽에 걸어두고 성적 쾌감을 맛보는 페티시즘, 익명으로 하는 처녀와의 펜레터 교신, 항문 쾌감증(analism) 등을 들 수 있다. 「태양신의 황소들」장의 서술자가 블룸을 두고 “그 자신의 그리고 그 한쪽만의 향유자”(“his own and his only enjoyer”(U 14. 914-15)라고 지칭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프로이트 식대로 말하면, 이성간의 성교에서 쾌락을 충족시키는 성기기에서 물러나 항문기의 어린이처럼 혼자만이 즐기는 변태적인 에로티즘에 탐닉해있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글쓰기와 용변 행위가 교묘하게 결합된 위의 배변 장면에서 블룸이 괄약근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쾌변의 낙을 즐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프로이트의 항문기의 이론을 연상케 하기

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Kiberd 972). 불륨의 여러 형태의 자기 색정 행위 중에서도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항문 집착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불륨이 이러한 항문적 에로티즘에 탐닉하는 것은 터커가 지적하였듯이 “이 때의 불륨의 주된 관심사는 아내와의 불행한 관계를 잊고 싶은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불륨의 성격상의 대결보다는 도피를 강조하는 일면도 있다”(Tucker 51). 우리는 이 지적에서 불륨의 배변은 단순히 용변 행위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륨의 성격적 일면을 보여주는 의미 깊은 대목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륨의 항문 집착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일과가 진척되면 될수록 더욱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변을 보고 집을 나온 그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에 그의 근무처인 『프리먼즈 저널』신문사에 도착한다. 광고 담당 사원인 그는 주문 받은 광고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후 1시경 신문사를 나온다. 국립 도서관에 가서 그럴듯한 도안 자료를 찾기 위해서이다. 가는 길에 점심부터 먼저 먹으려 한다. 그의 점심을 먹기 전후의 움직임을 담은 이 「식인종들」(*Lestrygonians*) 에피소드는 리나티 설계도(Linati Schema)에 따르면, 이 장에 배정된 신체기관(organ)은 식도(食道)이다. 이 소화기관의 하나인 식도의 이미지에 걸맞도록 이 장은 먹는 이야기로 꼭 차 있다. 스티븐은 마텔로 요새탑에서 아침을 든 이후로 종일토록 점심과 저녁을 먹는다는 말은 없지만(주로 마시지만 하는 것은 확실하다), 불륨은 하루 세끼 식사를 한 끼도 거르지 않는다. 무엇을 먹을까 궁리하면서 버튼식당으로 들어갔으나 지저분한 분위기와 식객들의 거친 매너에 실망하여 도로 나와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품위 있는 펍”으로 보이는 데이비 번즈(Davy Byrne's)로 들어간다(U 8. 732). 버건디 한 잔에다 치즈 샌드위치를 시켜 점심을 먹고 나른한 기분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유리창에 파리 두 마리가 교미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인다(U 8. 896). 그것을 보자 그의 머리 속에 연애시절 물리와 가진 첫 정사의 장면이 불현듯 떠오른다. 호우드 동산에서 나는 그들의 뜨거운 첫사랑의 추억이다.

황홀하게 그녀 위에 덮쳐 누운 나는 짙 벌린 풍만한 입술로 그녀 입에 키스를 퍼부었지. . . . 그녀의 두 눈은 바로 꽃이었지, 마음대로 하세요, 흔쾌히

몸을 맡기려는 그녀의 눈초리. 어디선가 자갈들이 굴렀지. 그래도 그녀는 잠자코 누워 있었지. 산양 한 마리. 그밖에는 아무도 없었지. 철쭉꽃 흐드러진 벤 호우드동산 꼭대기에 암산양 한 마리가 (건포도같은) 똥덩어리를 떨어뜨리면서. 두벌두벌 거닐고 있었지, 고사리에 가려있던 그녀는 뜨겁게 내 품에 안긴 채 킁킁 웃음을 터뜨렸지. 그녀 위에 덮쳐 누운 나는 미친 듯이 그녀에게 키스를 퍼부었지. 그녀의 두 눈, 그녀의 입술, 그녀의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릴 듯한 길게 뻗은 목, 거칠게 짠 얇은 망사 블라우스 속의 풍만한 여인의 젖가슴, 곳곳한 기름진 젖꼭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키스했지. 뜨겁게 나는 그녀에게 혀를 내들렸지. 그녀도 나에게 키스했지. 나는 키스를 당했지. 온몸을 내맡긴 채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뒤흔들었지. 키스했지, 그녀는 나에게 키스했지.

나에게. 그런데 지금의 나에겐. (U 8. 906-17)

블룸의 애뜻한 이 호우드동산의 회상에는 파리 같은 미물(微物)도 교미를 즐기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는 자신은 현재 그 때와 같은 아내와의 교접을 모르고 지내다니, 하는 회한이 담겨있다. “나에게. 그런데 지금의 나에겐”이라는 마지막의 지극히 짧은 탄식이 이를 입증한다. “지금의 나에겐” 그녀의 온 몸에 키스를 퍼붓던 당시의 성적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뜻이다. 호우드동산에서 비롯된 몰리와와의 성교는 이 때의 정사로 딸 밀리를 낳고 그 4년 뒤에 아들 루디를 낳기 직전까지 계속되었으나 루디의 출사에 충격을 받은 이후로 그것이 단절된 것이다. 10년이 넘도록 부부간에 “육체적 관계가 불완전하였다”함은 그토록 오랜 기간동안 블룸은 항문집착증을 비롯한 각종 자기 색정으로 대리 쾌락을 충족시키면서 지내고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아침 식사를 부엌에서 그가 혼자 한 것도 이러한 부부간의 소원한 육체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블룸과 몰리의 열애를 촉발한 암염소의 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포옹을 하고있을 때 “건포도같은 똥을 누면서” 호우드동산 꼭대기에 나타난 야생의 암염소는 블룸의 항문도착증과 관계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클라이브 하트(Clive Hart)의 지적에 따르면, 블룸의 호우드 장면의 기억 속에 나타난 배변하는 염소는 글자 그대로 항문적 요소를 보여주면서 “블룸의 색정적 경향의 진정한 핵심을 암시한다”(134-35). 이 암염소는 뒤에 「키르케」장의 환상 속에 다시 나타나서 블룸의 항문 집착증을 꾸짖을 뿐만 아니

라 당장 이 추억 장면에서 여신상의 조각품에도 향문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과 함께 이를 직접 확인하고싶은 그의 욕구를 자아내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호우드 동산의 추억을 유발한 파리의 교미는 불륨의 회상이 끝났을 때도 계속되고 있다. “꼬리를 서로 맞댄 채 파리들은 뽀뽀 날개짓을 계속하고 있었다”(U 8, 918). 대결보다는 도피적인 성격의 불륨은 이번에는 파리로부터 눈길을 돌려 식당 바닥의 널빤지를 내려다본다. 참나무 널빤지의 윤이 반들반들한 나뭇결의 곡선미에 사로잡힌 그는 곡선미를 자랑하는 여신의 동상에도 향문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기에 이른다(U 8, 919-20). 먹은 풀을 향문으로 배설하는 암염소처럼 박물관에 진열된 여신상에도 향문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생각에 빠진 것이다.

균형 잡힌 몸매의 여신들, 비너스, 주노 여신상. 온 세상이 예찬하는 곡선미. 도서관 박물관의 원형 현관 안에 서있는 그들, 즉 나체의 여신들을 볼 수 있 으렸다.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 그들은 남자가 쳐다보는 것을 개의치 않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있으니. 입은 굳게 다물고. 플린과 같은 친구들 에게 꼭 말해 주고싶은 게 있지. 만일 그 동상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조각 한 갈라테아 여신상과 사랑에 빠진 것을 알면 맨 먼저 뭐라고 말할까. 인생 은 유한하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할지이다. 신들의 회식에서 감로주를 통음하는 진수성찬은 모두가 불로장생의 음식 아닌 것이 없지. 기껏해야 삶 은 양고기, 당근과 순무, 올소프회사(Allsop)의 병 맥주가 전부인 우리들의 싸구려 점심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 . . 신들의 음식. 주노의 여신상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자태. 그 불멸의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가 한 구멍으로 음식을 밀어 넣으면 뒷구멍으로 그것이 빠져나오기 마련이지. 음식, 유미(乳糜), 피, 똥, 흙, 음식. 이런 것들을 기관차에 붙을 때듯이 끊임없이 밀어 넣어 줘야지. 여신상에는 (똥구멍이) 없어. 본 적이 없으니. 오늘은 꼭 살펴 봐야지. 수위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지. 무엇을 떨어뜨려 (그것을 줌은 척 하고) 몸을 구부려야지. (그리하여) 여신상에 그것이 있는지를 살펴봐야지. (U 8. 920-32)

이 장의 기관인 식도의 기능에 걸맞게 입으로 먹는 이야기로 시작하여 향문으로 배설하는 과정을 거쳐 여신상의 향문을 살펴보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에 이른 그는 데이비 번즈를 나와 광고물 도안에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도서관에 갔을 때 도서관과 같은 경내에 있는 박물관으로 들어가 이를 직접 확인

하려 한다. 그러나 재수 사납게도 스티븐을 만나러 도서관을 방문한 멀리건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U 9. 609-17).¹⁾ 그리하여 “그리스 여신상 둔부의 항문 존재 여부 확인 계획”의 실패는 그가 이날 성취하지 못한 일들의 하나로 기록되고(U 17. 2071-80) 말지만 그 계획 자체는 그의 항문 강박관념의 일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인 것만은 분명하다.

옛날 이웃에 살던 부인이 산고로 입원중이라는 소식에 그녀를 문병하러 밤늦게 찾아간 산과 병원에서 블룸은 그 날 처음으로 스티븐을 대면한다. 웅장실로 안내를 받은 그는 술을 마시면서 의학적인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스티븐 일행과 합석한다. 첫눈에 스티븐의 학자적인 식견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아버지다운 입장에서 아들 뺨인 그의 방종한 생활을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기 시작한다. 그가 산모를 위문하는 사이 스티븐은 술을 더 마시고 만취가 되어 사창가로 갔음을 알고 그를 찾아 나선다. 신변의 안전이 걱정되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한밤중에 스티븐을 찾아 흥등가를 해매는 장면을 그린 에피소드가 환각의 난장판이라 불리는「키르케」이다. 연극적 형식으로 구성된 이 장에는 그가 보고 듣고 생각한 모든 존재들이 때도 시도 없이 마구 등장한다. 무의식의 제전이라 할 이 장에서 그는 환각 속에 나타난 각종 인물들로부터 그의 성적 도착중에 대하여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다.

부흥회 전도사 알렉산더 J. 도우이(Dowie)가 블룸의 항문 도착증을 두고 비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한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우들이자 반(反)블룸과 신도 여러분, 블룸이라는 저 사나이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나온 자로,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치욕입니다, 악취를 풍기는 이 멘데스의 염소(goat of Mendes)격인 저 자는 어린 시절부터 극악한 난봉꾼으로 일찍부터 발육부전적 음란증(infantile debauchery)의 징후를 보여왔답니다”(U 15. 1753-56). 남자로 둔갑한 포주 벨라 코헨(Bella Cohen)이 이 공격에 가세한다. 그녀는 블룸을 향

1) 블룸의 여신상의 항문 확인 실패는 멀리건이 스티븐에게 하는 다음과 같은 말에서 확인된다. “내가 거품에서 태어났다는 아프로디테(=비너스의 그리스이름) 여신에게 문안을 드리러 박물관에 갔을 때 그 친구(=블룸)가 거기에 와 있지 않겠나. . . . 오, 그런데 말이야, 그 친구는 (호색적인 눈초리가) 그리스 사람들 이상으로 그리스적이야. 갈릴리인 특유의 파리한 그의 두 눈이 여신상 중앙의 잘룩한 부분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더군. 비너스의 아름다운 궁둥이에서 말이야. 오, 기가 막힌 그 요부! 숨은 처녀를 추적하는 신의 모습이라고나 할까”(U 9. 609-17).

해 “수치스런 개 같은 놈!”(U 15. 2835)이니 “간부의 엉덩이 찬양자”(U 15. 2839)니 떠들면서 “똥의 탐식자”(“Dungdevourer”)(U 15. 2843)라는 말로 그를 사정없이 조롱한다.

곧이어 나타난 님프는 그의 페티시즘을 폭로한다. 이 님프는 불륨이 잡지 (*Photo Bits*)에서 오려 그의 침실 벽에 걸어둔 액자 속의 그 미소녀다. “당신은 나를 들고 가서, 참나무와 금박으로 된 액자에 넣어 당신 부부 침대 위에 걸어 두었지요. 어느 여름날 저녁에 아무도 모르게 당신은 나의 몸에 네 군데나 키스했지요. 그리고 예쁜 연필로 나의 눈, 나의 앞가슴과 나의 치부에도 까맣게 칠을 했지요. . . 캄캄한 밤이면 당신의 찬양하는 소리를 나는 듣기도 했어요”(U 15. 3263-70). 님프의 폭로에 그녀의 언니라는 주목(“The Yews”)까지 덩달아 나서 그의 관음증과 수음을 들먹이면서 과거의 성적 비행을 고백하라고 다그친다. 이에 불륨은 다음과 같이 변명을 한다. “나는 조숙했답니다. 정력이 넘치는 청춘. (나도) 동물이지요. 나는 숲의 신에게 제물을 바친 셈이죠. 때는 만화 방창의 계절, 바로 만물이 짹짹하는 계절이었지요. 모세관 인력은 자연 현상이랍니다. . . 제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억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악마에게 완전히 홀렸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마저 없었으니까요”(U 15. 3353-59). 바로 이때 호우드동산의 추억 장면에 나온 바 있는 그 암염소가 느닷없이 나타난다.

(쨍쨍쨍 흐드러진 벤 호우드 동산 꼭대기에 암염소 한 마리가 지나간다. 통통한 젖통을 늘어뜨리고, 엉덩이의 꼬리는 세운 채, 건포도 같은 똥덩어리를 떨어뜨리면서)

암염소

(운다) 매애매애매애매! 나나나니! (U. 15 3367-3370)

이 암염소의 우는 소리는 불륨더러 구차하게 변명을 하지말고 그와 님프사이에 있었던 각종 도착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질책이다(Hart 133). 이에 불륨은 얼굴을 붉히면서 “전에는 정상적인 관계를 했지요. 환경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도 있지요”(U 15. 3373)라는 말로 그의 도착증을 인정하긴 하지만 이는 이미 고치기 어려운 고질이 되어있음을 보여준다. 환각 속에 나타난 암염소

는 곧 시의원 난네티(councillor Nannetti)의 비전으로 변용해 버리기 때문이다. 암염소의 항문에서 여전히 떨어지는 똥을 보자 자신이 호우드의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환각에 빠진 그는 때마침 우편선에 몸을 싣고 그 옆을 지나고 있는 난네티의 모습에 흡수되어 버리고 만다.

이 때의 시의원 난네티는 더블린 시의회의 특사의 자격으로 정부 협의 차 영국으로 가면서 “갑판에 홀로 서서,” 애국자 로버트 에밋(Robert Emmet)의 유언을 “비장한 어조로 낭송한다.” “우리나라가 지상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그 위치를 확립하는 날, 그 날이 오면, . . . 내 묘비명을 써 주세요. 나는 내 의무를. . .” 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불륨은 이 말을 받아 기다렸다는 듯이 사정없이 방귀를 갈긴다. “다 했어요. 뿌우우웅!”(U 15. 3386-90),²⁾ 불륨이 낮에 「세이렌」(Sirens)장의 끝에서 에밋의 유언을 향하여 방귀를 먹였듯이(U 11. 1274-94), 여기서도 역시 그렇게 한다. 방귀를 끼는 것은 똥구멍을 통한 행위임이 분명하다. 밤중의 환각의 복마전에서마저도 그가 방귀를 끼는 것은 그의 항문 집착증이 몸에 배어있음을 보여주기에 아쉬움이 없다. 암염소의 질책에 그는 그의 항문강박증을 자인하면서도 고질이 되어버린 도착증을 후회하거나 고칠 생각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도착적인 에로티시즘에 대한 불륨의 변명을 들은 님프는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항문 편벽증을 상기시킨다. “우리 불멸의 여신들은, 오늘 당신이 보았다시피, 우리 몸에는 항문 같은 것도 없고 음모도 없답니다. 우리는 얼음처럼 차고 순결하지요. 우리는 전깃빛만 먹고사니까요”(U 15. 3392-93). 님프의 이 말은 하트에 의하면, 항문도 없고 음모도 없다는 말로 미루어 보아 불륨의 성적 경험에는 항문적 에로티시즘과 성기적 에로티시즘간에는 뚜렷한 구별이 없음을 암시한다(Hart 135). 다시 말하면, 불륨의 항문적 에로티시즘이 바로 루디를 잃기 전의 정상적인 성행위와 같다는 뜻이다.

그러자 불륨은 그 사이 곡선미가 빼어난 여신상으로 둔갑한 님프에게 나직하게 이렇게 고백한다. “그래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Peccavi!—라틴어: “I have sinned!”) 나는 등인지 허리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저 살아있는 여신상에다 경의를 표하면서 지내왔지요”(U 15. 3405-06). 불륨의 이 고백은 자신의 자

2) 불륨과 난네티의 관계와, 에밋의 유언에 대한 불륨의 방귀뀌기 경위를 자세히 알려면 줄문 「『올리시즈』에 나타난 배설적 풍자의 정치학」, 89-98쪽을 참고할 것.

기색정 행위는 종교적 견지에서 보면 일종의 죄악일지 모르나 이 죄스러운 행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기엔 물론 죄책감에 대한 회개의 표시나 시정의 의사도 없다. 따라서, 그는 그의 항문 집착증을 인정은 하지만 오딧세우스가 결코 돼지로 변할 수 없듯이 그도 이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Hart 135).

자정이 넘은 심야에 사창가에서 영국 병사들에게 얻어맞아 거리에 쓰러진 스티븐을 부축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블룸은 해갈에 좋은 코코아를 대접하면서 그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권한다. 그러나 스티븐이 이를 사양하자 둘은 안마당으로 나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란히 서서 소변을 같이 본다. 스티븐과 작별한 그는 침실로 들어 가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물리의 엉덩이에 키스를 퍼붓는다. 20년 만에 전쟁에서 이타카로 돌아온 오딧세우스가 너무 기뻐 그의 나라 땅에 키스를 했듯이 블룸은 하루의 “방랑”을 마치고 침실에 들어가 부인의 양쪽 볼기에도 푸짐하게 키스를 퍼붓는다.

그는 그녀의 통통하게 살찐 무르익은 노란 향기를 내뿜는 멜론형의 엉덩이에 키스했다, 통통하게 살찐 멜론형의 두 반구의 각각에다가, 은은하고도 지속적이면서 자극적인 멜론 냄새 물씬한 입맞춤을 통하여, 그 무르익은 노랑빛 고랑 사이에도.” (U 17. 2241-43)

여기에 블룸의 항문집착증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가 아침에 배변을 즐긴 이상으로 여기서 아내의 “통통하게 살찐” 엉덩이의 키스를 통하여 항문구음(analingus)을 즐긴다. 양쪽 볼기의 입맞춤만으로는 모자라서 “무르익은 노랑빛” 똥구멍까지 살살이 빠는 것은 포주 벨로가 말한 “간부의 엉덩이 찬양자,” 또는 “똥의 탐식가”의 행위 바로 그것이 아닐 수 없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부인의 둔부 키스라는 그의 마지막 행위는 그가 얼마나 항문 편벽증에 탐닉해 있는가를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배설적 이미지러를 중심으로 블룸의 하루를 살펴보았다. 그의 식성과 스티븐과의 소변장면을 통하여 보면 그는 평범한 보통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항문 이상 성욕을 보면 그는 남모르는 고민에 시달리는 외로운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루디를 잃은 이후로 다시는 그전과 같지 않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 손에 물 퍼 담기

지”(U 8. 610-11)라는 그의 내면독백이 암시하듯 그는 독자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부인과 정상적인 육체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루디를 잃은 이후로 그런 관계가 단절되었다. 10년 이상이나 부인과 “육체적 관계가 불완전하였다”함은 그토록 오랫동안 부부간의 정신적인 관계도 불완전하였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리하여 성욕에 굶주린 물리는 그녀의 콘서트 매니저인 블레이지즈 보일란과 그날 오후 4시에 자기 집에서 간음을 하기에 이른다. 이를 눈치 챈 블룸은 그들의 정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하루종일 고립감에 시달린다. “나는 왜 이렇게도 외로울까”(U 11. 32)하는 생각이 작품 도처에서 반복된다. 「세이렌」장의 서술자는 그의 애처로운 모습을 진열장에 전시된 샌드위치의 묘사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한다. “샌드위치모양의 종(sandwichbell) 아래 놓인 영구차 같은 한 조각의 빵 위에 한 마리의 마지막, 한 마리의 외로운, 여름의 마지막 정어리가 얹혀있다. 외톨박이 블룸”(U 11. 1220-21). 빵 위에 얹힌 “대가리 잘린”(U 11. 1219) 한 마리의 외로운 여름의 마지막 정어리는 블룸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처럼 초라한 생선의 이미지로 그려진 이 구절은 블룸의 고독을 상징한다(Blamires 110). 블룸은 이 살을 저미는 고독감을 부인에게조차 털어놓지 않는 채 항문 집착벽으로 이를 해소하면서 외롭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의 항문 강박증은 블룸의 소원한 부부 관계를 보여준은 물론, 밖으로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나 속으로는 고독과 더불어 사는 외로운 인물임을 보여주는 미학적 장치로 쓰였다 하겠다. “방랑하는 유대인”(U 9. 1209)의 후예인 그는 선천적으로 고독을 타고나긴 하였지만 후천적으로 독자의 죽음으로 야기된 고독마저도 운명으로 알고 이를 극복할 의지도 없이 고독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의 한 단면을 대변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할 것이다.

4. “여자의 엉덩이에다 키스하는 남자라면 마구 대들고싶은 심정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키스를 하다니 저 양반은 이상한 곳이다 싶으면 아무데나 키스를 퍼붓거든 아무리 쥐어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데다 말이지”(U 18. 1401-03)

스티븐이 해변의 산책을 마치고 바위 위에 코딱지를 붙이면서 “뒤에. 누군가가 여기에 오겠지”라고 생각한대로 블룸이 거기에 가서 수음을 하였듯이(U

13. 694-740), 블룸으로부터 잠결에 엉덩이 키스 세례를 받은 장본인인 몰리 블룸이 이 텍스트의 마지막 장인 「페넬로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녀는 오딧세우스의 정숙한 부인 페넬로페에 상응한다지만 그 성격은 정 반대다. 한 마디로 몰리는 몹시 본능적이다. 몰리는 남편 블룸과 함께 「오딧세이」부의 첫 장부터 나오기 시작하지만 작품이 거의 끝나도록 주로 다른 인물들의 언급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다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인 「페넬로페」에 피소드에 이르러 그녀가 온 장을 독점하는 주인공이 되어 그 사이 보여주지 않은 생활상을 거침없이 낱낱이 직접 들려준다. 전통적인 글쓰기의 문법을 무시하면 서까지 그녀의 마음속에 담긴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잠자리에서 몸을 뒤척거리는 그녀의 몽롱한 의식 세계를 오가는 억압된 온갖 생각을 이성의 눈치는 아랑곳없이 닥치는 대로 드러내 보인다. 여기에는 그녀의 성장 배경으로부터 오늘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순서도 없이 뒤범벅이 되어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가 그 큰 줄기를 이루고 있다.

몰리도 다른 인물들처럼 각종 배설 행위를 함은 물론이다. 그녀의 모든 항문적 활동은 스티븐의 경우처럼 예술적인 창조 행위로 이어지거나 블룸의 경우처럼 불결물기호벽(coprophilia)으로 연결되는 법이 없다. 오직 남편 블룸에게로 귀결된다. 첫째 몰리는 방귀를 끼고서도 남편을 생각한다. 그녀는 블룸과 마찬가지로(U 11.1274-92) 방귀를 똥다. 블룸이 대로상에서 전차소리에 맞추어 우렁차게 끼는 데 반해 몰리는 기차의 기적소리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끼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녀는 지브롤터에서 보낸 소녀시절을 회상하다가 방귀가 마려워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기적소리에 맞추어 조용히 방귀를 똥다. “남편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서다”(U 18. 903).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이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잘 수 있는 독방이 없음을 안타까워한다. “저 양반이 다른 침실에서 혼자 잘 수 있으면 좋으련만. . . 오 하느님 우리에게 방귀를 똥 수 있는 독방을 주소서”(U 18. 905-06).

몰리는 남편이 밤중에 집으로 데리고 온 스티븐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월경 기미를 느낀다. “어머나 가만 있자 그래 그것이 시작되는구나”(U 18. 1104-05). 방귀를 똥 때 국부가 다소 가려움을 느끼긴 하였으나(U 18. 902), 그것이 멘스의 전조일 줄은 몰랐다. “하도 많은 양의 피”(U 18. 1122)가 쏟아져서 요강에 걸터앉은 몰리는 작가 조이스에게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한다. “오 제임시 이

홍수 같은 피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U 18. 1128-29). 그 와중에서도 이 붓물처럼 터지는 월경을 그녀는 그 날 오후에 가진 보일란과의 성교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증거로 알고 기뻐한다(U 18. 1122-24). 그녀는 이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오줌을 누다. “오 정말이지 요란스럽기도 하구나 요강에 거품이 가득했으면 좋겠어 사내 녀석에게서 뭉칫돈이 굴러 들어온다던가 . . . 그 치(보일란)는 이토록 멋진 넓적다리를 보지 못했을 거야 어쩌면 이렇게도 하얗까 제일 보드라운 데는 바로 여기 이 사이지 얼마나 보들보들한가 복숭아같이. . . 오 맙소사 무슨 소리가 이렇게 요란하담 저지의 릴리(랭트리)를 닮았나 오 어쩌면 저 라호르의 폭포 소리 같을까”(U 18. 1142-1148). 물리는 월경과 소변을 함께 하면서도 그저 불륜과 관련된 생리적인 문제와 자신의 아름다운 몸매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조이스는 물리의 역할을 두고 이렇게 밝힌 적이 있다. 『울리시즈』의 “마지막 말(인간적인, 모두가 너무나 인간적인)은 페넬로페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불륜의 영원 세계행 여권에 빠져서는 안 될 입국사증(countersign)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인 「페넬로페」가 그렇다는 말입니다”(SL 278). “불륜의 영원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불륜이 불멸의 존재로 문학사에 길이 살아남을 인물임을 염두에 둔 말이라면 그가 그렇게 되느냐의 여부는 물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말일 것이다. 이처럼 작품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들려주는 물리의 “너무나 인간적인” 원색적인 말은 그녀의 남편 불륜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성욕의 소유자이다. 섹스를 “오직 자연 현상”(U 18. 1386)이라고 확신하는 그녀이기에 1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남편의 성적 무관심에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내가 시들어빠진 늙은 할망구가 되지 않은 것이 기적이지 저렇게 냉정한 양반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잠결에 어쩌다가 내 엉뚱한 궁둥이를 집적거리는 경우말고는 나를 껴안아주는 법이 없거든”(U 18. 1399-1401). 「이타카」의 서술자는 그녀의 둔부를 “젖과 꿀, 그리고 분비성 붉은 피와 생식의 온기가 흐르는 . . . 약속의 땅 . . .”(U 17. 2231-33)이니 하면서 찬양을 늘어놓지만 그녀는 그러한 미사여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녀는 자신의 둔부를 “우리의 온 몸에서 아무리 꺾어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데”(U 18. 1403-04)라고 생각할 뿐이다. 남편과의 성교에 굶주린 그녀는 그

날도 남편으로부터 그녀의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궁둥이에 키스 세례를 받은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분개까지 한다.

여자의 엉덩이에다 키스하는 남자라면 나는 마구 덤벼들고 싶은 심정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키스를 해대다니 저 양반은 이상한 곳이다 싶으면 아
무테나 가리지 않고 키스를 퍼붓거든 . . . (U 18. 1401-03)

물리도 남편의 성적 관심의 향문기로의 퇴행은 아들 루디를 잃은 직후부터 입을 잘 안다. “죽음은 한번 겪고 말이지 어떻게 두 번 겪나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전과 같지 않지”(U 18. 1449-50). 그러면서 아들을 더 낳지 못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개 두마리가 서로 엉덩이를 맞대고 교미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흥분을 누르지 못하여 남편을 졸라 루디를 임신하게 되었던 옛일의 회상에 젖는다(U 18. 1445-47). 이 짧은 회상은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면 그녀는 쾌락 원리를 정상적인 성교를 통하여 달성하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에도 변함이 없으나 불륜은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한 자기 색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원망이 깔려있다 할 것이다.

남편의 너무 오랜 성적 침묵을 견디지 못한 물리는 결혼 후 처음으로 그 날 오후에 그녀의 매니저인 보일란과 정사를 가진다. 그녀는 그것도 성적으로 자기를 외면한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저 양반은 이상한 곳이다 싶으면 아무 데나 키스를 퍼붓지 . . . 그러니까 전에 없이 내가 사내와 그 더러운 짐승 같은 사내와 그 짓을 하지”(U 18. 1402-05). “내가 만일 화냥년이라면 그건 전적으로 저 양반 탓이야”(U 18. 1516).

그러나 보일란의 야수적인 성욕과 조잡한 매너에 크게 실망한 그녀는 그를 경멸하기 시작한다(U 18. 143-57; 1368-71). 그러면서 그녀의 실망은 남편에 대한 이해와 기대로 옮겨 간다. 뉘니뉘니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은 마음씨 고운 남편뿐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아 남편은 여성에 대한 이해심이 많고 여성이 듣고자하는 바를 정확하게 찰라내는(U 18. 1578-79) 선량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오직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 튼실한 아이를 낳을 생각까지 한다. 월경이 시작되자 이는 보일란과의 관계에서 임신이 되지 않은 증거로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남편

“폴디가 그(보일란)보다 더 많은 정자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알아 그러면 오죽이나 좋을까”(U 18. 167-68)라고 생각한다. 그녀의 장이자 『울리시즈』의 마지막인 「페넬로페」에피소드가 끝날 무렵부터는 “이 눈물의 골짜기”(U 18. 1517-18)같은 불행한 16년 간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고 말겠다”(U. 18 1497-98)는 생각으로 바빠지기 시작한다. .

조이스는 벅전(Frank Budgen)에게 보낸 편지에서 「페넬로페」장의 특징을 이렇게 밝힌 바 있다.

「페넬로페」에피소드는 이 책에서 가장 불 만한 구경거리(clou)입니다 . . . 이 장은 여성의 말인 “그래요(Yes)”로 시작하여 이 말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장에는 왜냐하면, 둔부, 여자, 그래요 라는 말들로 표현되는 여성의 젖가슴, 엉덩이, 자궁, 그리고 성교라는 (지구본의) 네 기본 방위(cardinal points)가 있습니다. 이 네 기본 방위가 이 장에서 거대한 지구본처럼 물레질하듯이 천 천히 확실하게 그리고 고르게 빙빙 돌고 있으니까요. (SL 285)

이 장의 “네 기본방위”를 이루는 “젖가슴, 엉덩이, 자궁, 그리고 성교”라는 말이 물리의 의식 속에서 얼마나 지구본처럼 맴돌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구경”하였거니와 앞으로 전개될 그녀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 계획에서는 특히 “둔부” 또는 “엉덩이”이라는 말이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배설기관과 관련된 조이스의 이 “둔부”의 언급은 작품의 맥락으로 보아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Tucker 153). 앞으로, 주로 둔부라는 방위가 물리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돌고 도는가를 구경하기로 한다.

물리는 무엇보다도 남편의 향문적 에로티시즘을 싫어한다. 그들의 그토록 오랜 불완전한 성생활은 불륜의 향문도착증이 그 화근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녀는 철저하게 정상적인 성교를 통하여 성욕을 충족시키려는 여성이다. 소녀 시절에 철모르고 바나나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안에서 으깨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어 중단한 적(U. 18. 803-04)이 있고, 불륜과의 연애시절에 그로부터 그녀의 육체를 예찬하는 음란한 편지를 받고 이에 자극되어 하루에 5-6차례 수음을 한 적(U 18. 1176-79)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변태적인 자기색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 날 밤에도 남편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둔부에 키스한

것”(U 18. 53)에 대하여 처음에는 이를 개탄하다가 뒤에는 차츰 이를 정상적인 교접으로 유도할 생각으로 바빠진다.

그녀는 남편의 모처럼의 요구대로 아침상을 맛있게 차려주고 나서 은은한 가락의 노래를 부르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선정적인 예쁜 속옷부터 갈아입을 생각을 한다. “저 양반이 그것을 실컷 볼 수 있도록 가장 멋진 슈미즈와 팬티를 갈아입어야지 저 양반의 물건이 뽐뽐하게 서도록 말아야”(U 18. 1508-1510). 그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녀는 보일란으로부터 “먹혔다”는 사실을 실토하려 한다(U 18. 1510-13). 여기에는 불륜과의 간통 사실을 자랑함으로써 남편의 질투심을 촉발시키는 물론 남편의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그녀의 밀통 행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엄포성 계산이 깔려 있다. 만일 폭로 계획이 주효하여 남편이 평상시의 습관대로 자기 둔부에 키스부터 먼저 하고 싶어 하면 그녀는 알몸을 드러내놓고 마음대로 하도록 온 몸을 맡기겠다고 버른다.

만일 저 양반이 내 엉덩이에 키스하고 싶어하면 나는 드로즈를 흘랑 끌어내려 그의 얼굴 정면에서 엉덩이를 불룩하게 들이밀 거야 실물 크기 그대로 말아야 (그러면) 그는 혀를 만발 (7 miles)이나 뻗어 내 똥구멍을 죽죽 빨아 대겠지. (U 18. 1520-22)

뇌쇄적인 노출 공세를 펴도 그것이 성교로 불이 붙지 않고 똥구멍만 계속 빨고 있으면 그녀는 남편더러 키스로 재미 본 대가를 물릴 생각까지 한다. “저 양반이 내 갈색 부분만 빨고 있으면 나는 말하고 말 테야 1 파운드나 한 30 실링쯤 내어놓으라고 사고 싶은 속옷이 있다면서 말이지 그때 만일 저 양반이 그 돈을 나에게 내어놓으면 그 양반에게도 그리 손해 될 것이 없지 나는 다른 여편네들처럼 부풀려 돈을 뜯어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U 18. 1522-26).

물리의 유혹 계획은 더욱 절박해진다. 만일 남편이 벌금을 물더라도 엉덩이 키스로 끝나고 말면 그녀는 최후의 비상 수단으로 모욕적인 연사를 써서 그의 성욕을 자극하려 한다. 음란한 말씨에 놀란 그가 어쩔 줄을 모르고 얼떨떨해 하면 그녀는 그제야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바라는 바를 직접 암시할 생각을 한다.

오 그래도 그것이 먹히지 않으면 나는 시치미를 떼고 나만 답을 알고 있는 문제를 한두 가지 불쑥 던져야지 저 양반이 대답을 맞히려고 껴박고 있으면 나는 저 양반 성격을 구석구석 알고 있으니까 내 엉덩이를 바짝 조이고 서는 몇 마디 음란한 말을 내뱉어야지 구린 내 물씬한 엉덩이라거나 내 똥이나 활아요 라거나 아니면 내 머리 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지저분한 말이거나 간에 그러고 나서 슬쩍 암시를 해야지 그렇지 . . . (U 18. 1528-32)

음담패설을 써서라도 남편의 성적 관심을 되살려 보겠다는 물리의 시도는 여기서 끝이 난다. 얼마 전에 있던 월경 생각이 다시 머리를 차지하는 데다가 15분을 알리는 패종 소리에 새벽이 가까워 옴을 알고(U 18. 1534-42) 아침 일찍 일어나 할 일 생각으로 그녀의 관심이 옮겨가기 때문이다. 비록 논리적인 질서를 기대할 수 없는 내면독백이기는 하나 여기서 물리가 동물적인 수성까지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남편과의 육체적인 관계를 회복하려 궁리하는 것은 그녀가 행복했던 초혼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꿈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아무런 손색이 없다. 「키르케」장의 환각이 “억눌린 감정의 되살아남”(프로이트의 말)이듯이 이 「페넬로페」장의 물리의 내면독백도 바로 그것이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그녀의 의식 내용 역시 잃어버린 에덴에의 꿈에 다름 아니다. 날이 밝으면 남편이 또 “작가이자 앞으로 이탈리아어 대학 교수 겸”(U 18. 1301-02)이라는 스티븐을 데리고 올지도 모르므로 그를 맞기 위하여 집안을 온통 장미로 장식할 생각을 한다. “나는 꽃을 사랑해요 나는 집안을 온통 장미로 넘치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느님 자연처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U 18. 1557-59).³⁾ 이 꽃 생각은 곧 불림이 연애 시절 자기를 “한 떨기 야생화”라고 불러주던 철쭉꽃 만발한 호우드 동산의 연상을 불러일으킨다. 불림이 앞에서 애뜻하게 회상한 바 있는 바로 그 곳, 그 순간이다.

저 양반이 말했지 해님은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고 철쭉꽃 흐드러지게 핀 호우드동산에 우리가 나란히 누워있던 그 날 말이지 . . . 그 날 내가 먼저

- 3) “은 집안을 장미로 넘치게 하겠다”는 물리의 생각은 “그녀가 정신적으로 그녀의 집을 불림과 밀회를 즐기던 지난날의 호우드 동산처럼 꾸미고 싶음을 의미한다. 그녀는 또 다른 서사시 『실락원』(Paradise Lost)에서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에덴동산의 복귀를 꿈꾸듯이 호우드 시절의 행복을 되찾으려 노력한다”(Kiberd 1195).

저 양반더러 나에게 프로포즈하도록 만들었지 그렇지 내가 먼저 내 입에 있던 씨박이 과자 토막을 그의 입에 밀어 넣었지 . . . 기나긴 키스가 끝나가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 맛았어 저 양반이 나를 한 떨기 야생화라고 그랬지 맛았어 우리는 모두 꽃이고말고 여자의 몸이란 꽃이에요 그 말이 저 양반 인생에서 한 말 중에서 유일한 진실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해님은 오늘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고도 했지 맛았어 그 말이 어찌나 마음에 들던지 . . . 그래서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기쁨을 송두리째 다 주어 저 양반으로 하여금 나에게서 예스라는 말을 받아내도록 만들었지 그런데 처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먼바다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지 (U 18. 1571-82)

몰리는 바라던 대로 블룸의 프로포즈를 받았으나 막상 수락할 순간이 되자 잠시 탄전을 부린다. 먼바다와 하늘을 쳐다보며 소녀시절에 지브롤터에서 만나고 겪은 많은 사람, 많은 일들을 머리에 떠올린다(U 18. 1582-1604). 블룸이 알리 없는 이런 회상에 잠겼다가 마침내 블룸이 고대하는 프로포즈를 수락한다. 그녀의 “예스”라는 말로 『율리시즈』의 가장 큰 구경거리는 막을 내린다.

저 양반이 나는 어느 누구 못지 않게 멋쟁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나는 눈짓으로 나에게 다시 예스를 요구하도록 졸랐지 그랬더니 저 양반이 나를 한 송이 야생화라 부르면서 날더러 예스해 주겠느냐고 묻더군 그래서 당장 나는 두 팔로 그를 포옹하면서 그의 온 몸을 나에게로 끌어당겼지 그래서 그이는 온통 향기 투성이인 내 젖가슴을 감촉할 수 있었지 맛았어 저 양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 그래서 맛았어요 나는 예스라고 말했지 예스(Yes) 하겠노라고. (U 18. 1604-09)

그 때의 행복한 시절과 현재의 부부생활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때는 입안의 씨박이 과자까지 나누어 먹었으나 지금은 부부끼리 한 상에서 식사도 하지 않고 지낸다. 그때는 항문이니 엉덩이니 하는 불결물 기호벽적인 낱말조차 모르고 지냈다. 그러나 지금의 남편은 잠결에 어찌다가 그녀의 엉덩이에 키스나 하면서 그녀의 성적 욕구를 외면한 채 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자며 살아간다. 블룸은 그 사이 성적으로 항문기로 퇴행하였고 몰리는 성기기에서 요지부동이다. 그러니까 몰리가 어찌 연애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없겠는가.

몰리와 관련된 배설적 이미지라는 그녀의 현재의 육체적 고통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충분하다. 블룸 부부와 관련된 각종 배설적 언급을 묶어서 보더

라도 이들 부부의 대조적인 성적 관심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음은 분명하다. 물리는 성적 허기를 채우지 못해 허덕이고 있는 반면에 블룸은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의 변태적인 색정에 빠져 지낸다.

5. “리듬이란 어떤 미학적 전체에서 부분과 부분간의, 또는 미학적 전체와 그 부분간의, 또는 부분과 미학적 전체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형식적인 미학적 관계이다”(P 206).

『율리시즈』의 3부를 각각 대변하는 스티븐, 블룸, 그리고 물리는 그들의 성격이나 관심이 서로 다르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랜 전부터 학자들이 떠나없이 지적해온 일이다. 이 책의 복판에 자리한 「오딧세이」부의 주인공이요 이 책 전체의 중추 인물이라 할 블룸과 스티븐과의 관계만 하더라도 많은 비평가들이 그들의 성격적 차이를 지적하였다. 엘만(Richard Ellmann)은 전기작가답게 “스티븐은 미숙한 조이스의 분신임에 반해 블룸은 성숙한 조이스의 분신”(1982. 359)이라고 하였고, 피크(C. H. Peake)는 스티븐의 기질은 예술가적이라면 블룸의 기질은 시민적이라고 하였다(114-22). 정신분석학적으로 이 작품을 접근한 셰크너(Mark Shechner)는 “스티븐이 당한 인물이라면 블룸은 열린 인물”(135)이라고 하였고, 두 인물의 배설물에 대한 반응에 주목한 존슨(Jeri Johnson)은 “스티븐은 정신적인 인간임에 반해 블룸은 육체적인 인간”(793)이라고 하였다. 학자들이 어떤 말로 표현하든지 간에 이 두 인물은 성격이 서로 대조적임은 분명하다.

이들 세 인물이 성격을 서로 달리 하는 것은 조이스가 계획적으로 의도한 일이었다. 이는 조이스가 “몸의 서사시”를 쓰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한 『율리시즈』(Budgen 21)에서 에피소드별로 인체의 기관을 배정한데서 입증된다. 리나티 설계도에 의하면,⁴⁾ 「오딧세이」부의 12개 에피소드와 「노스토스」부의 3개 에피소드에는 빠짐없이 사람 몸의 기관이 골고루 배정되어 있지만 맨 앞의 「텔레마키아」부의 3개 에피소드에는 그것이 전혀 없다. 거기에는 다만 “텔레마코스에게는 아직 몸이 없다”(Telemachus does not yet bear a body)고 적혀있을 뿐이다. 스티븐의 장인 이들 세 에피소드에만 기관이 없는 것은 그와 다른 인

4) 엘만 1972, 188을 볼 것.

물들과의 성격적 차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의 반영이 아닐 수 없다.

엘만은 위의 말을 두고, “거부(*no*)의 세계를 해매고 있는 스티븐에게 몸마저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인다. . . . 육체적인 문제에 관한 한 그는 아직도 애송이라는 뜻이다”라면서, “스티븐은 세속적인 문제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지고한 학문의 영역’(lordly study)에만 탐닉하여 여전히 관념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석한다(1972. 31). 스티븐의 관심이 육체적인 (그것도 주로 배꼽 아래의 하체 부위) 문제에 집착하는 블룸 부부와는 달리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엘만의 해석은 이 작품의 9번째 에피소드인 「스킬라와 카립디스」의 기관이 “두뇌”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에피소드는 스티븐의 장이 아닌 「오딧세이」부에 해당하긴 하지만 스티븐은 이 장의 무대인 국립 도서관에서 많은 문단의 인사들과 더불어 셰익스피어를 펼치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블룸과 스티븐의 “대표적인 두 기질”을 두고 「이타카」장의 서술자는 전자는 “과학적”이요, 후자는 “예술적”(U 17. 559-60)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의 대조적인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예로 그들의 소변 장면처럼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블룸은 스티븐과 나란히 서서 배뇨를 하면서 스티븐의 성기와 같은 신체적인 문제를 궁금해하는 반면에 스티븐은 블룸의 할례와 같은 신학적인 문제를 궁금해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엘만의 해석과 맞아떨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배설작용은 그들의 상반된 의식 상태를 보여주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배설 행위를 통한 성격적 차이의 표현은 스티븐과 블룸만의 문제로 끝낼 수 없다. 그들이 소변을 보는 자세에서 이 작품에서 빠져서는 안될 물리의 출현이 암시되어있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블룸의 집 안마당에서 “밝기는 하나 회미하게 밝은 그림자”를 쳐다보면서 같이 오줌을 누다. 이 그림자는 물리의 “이층 침실에서 비스듬히 갓을 씌운 등유 램프의 불빛이 블라인드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다(U 17. 1173-74). 이 장면의 암시적인 예언대로 이 이층 침실의 주인공 물리가 이 책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페넬로페」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 장의 인체 기관은 “살”(Flesh) 또는 “비계”(Fat)이다. 물리는 그녀의 장에 주어진 살의 생물학적인 기능에 걸맞도록 그녀의 육체적인 의식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인간적인, 모두가 너무나 인간적인 마지

막 말”은 “블룸의 영원 세계행 여권에 필수적인 입국사증”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스티븐의 그것까지 겸한다. 다시 말하면, 물리는 다른 두 인물과의 관심의 차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이들 두 인물을 하나로 아우르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⁵⁾

앞에서 이미 그들 부부간의 대조적인 관심은 항문의 이미지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녀의 스티븐에 대한 관심만을 간략하게 살피기로 한다. “여자란 젊게 보이려고 하루에도 20번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사내들 품에 안기기를 바란다”(U 18. 1407-09)고 생각하는 물리는 그 날 아침 신수를 보려고 친 카드놀이(“wishcard”)에서 “젊은 손님”이 오리라는 점괘가 나왔다(U 18. 1314-17). 이 점괘가 남편이 야밤에 데리고 온 “젊은 시인” 스티븐으로 적중하였다고 믿고 “만일 그가 23-4세쯤이라면 나는 그의 애인으로도 그다지 늙은 편이 아니야”(U 18. 1328)라면서 기뻐한다. 만일 이 “지적인 젊은 시인”(U 18. 1359)이 자기를 무식쟁이라고 깔보면 그녀만의 특기인 성교를 가르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나를 무식꾼으로 보지는 않겠지 만일 그가 모든 여자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의 몸이 활활 타도록 나만의 다른 비방을 가르칠 수 있지 . . . 그러면 그는 나를 소재로 연인과 정부에 관한 글을 써서 우리 둘의 사진과 함께 모든 신문에 발표하면 그는 일약 명사가 되겠지 오. . . .”(U 18. 1362-66)

스티븐을 애인으로 상정하고 이와 같은 음탕한 생각에 빠졌다가 얼마 뒤엔

-
- 5) 피크의 다음 견해를 참고할 것. “Molly Bloom’s soliloquy is the epilogue to the book of the citizen and the artist. In her uncritical acceptance of life they are united, as artist and citizen are united in her person . . . , and brought together in her thoughts. Hearing that her husband has come home with ‘Stephen Dedalus, professor and author,’ her mind fills with dreams of entertaining the young man—erotically, maternally, and musically . . . Her thoughts finally returns to Bloom, to his courtship, and to her reiterated *Yes* to him. Significantly it is the thought of buying flowers to welcome Stephen which initiates the train of thought leading to Bloom’s triumph in her mind: in her ‘sane’ and ‘fertilisable’ nature the relationship of artist and citizen, symbolically enacted in the kitchen, is psychologically re-enacted in bed by the affirmation of the common flesh(119).

그를 집 없이 헤매는 가련한 아들 뿔로 알고 그가 딸 밀리가 쓰던 이층의 빈 방에 자지 않고 그냥 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U 18. 1488-90). 그러다가 다시 그를 연인으로 보기 시작한 그녀는 남편이 만약 다음 날 아침 그를 다시 데리고 오면 그를 유혹할 생각으로 바빠진다. 맛있는 아침을 대접하고 나서 선정적인 옷차림으로 그의 성욕을 유발하겠다는 생각(U 18. 1491-97)과 함께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실내를 온통 장미꽃으로 장식하려 한다(U 18. 1550-58). 그녀의 꽃 생각은 자기를 “한 떨기 야생화”라고 불러주든 불륨의 말에 흡수되어 호우드동산에서 그의 구애를 수락한 “에스”라는 말과 함께 그녀의 에피소드는 끝이 난다. 그녀의 두서없는 스티븐에 대한 생각을 종합하여 뜯어보면 한마디로 스티븐은 “교육을 잘 받은 지성인”(U 18. 1494)임에 반해 그녀는 그녀 장의 기관인 “살”답게 무식과 더불어 욕정으로 가득한 살덩어리에 가깝다. 이러한 물리와 스티븐의 상반된 특징은 스티븐과 불륨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그녀와 불륨과의 관계에서 확인된 서로 대조적인 성격 그대로이다. 그러므로 조이스가 각 에피소드마다 기관을 배정한 것은 인물의 성격 부각을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배설적인 이미지의 활용을 통하여 조이스는 세 인물의 대조적인 성격을 더욱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스티븐은 신학적인 문제에 집착하되 예술적인 창조에 몰두하고, 불륨은 현상적인 문제에 집착하되 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독한 인물이다. 불륨은 성욕의 상실로 향문적 도착증 등의 자기 색정에 빠져있고 정상적인 성교만을 고수하는 그의 부인 물리는 성적 허기를 채우지 못해 몸부림치는 “대지의 여신”(Gea-Tellus)(U 17. 2313)으로 그려져 있다.

『울리시즈』의 구조는 이 책이 3부로 구성되어 있듯이 성격을 각각 달리하는 세 주요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배설적 이미지의 추적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성격과 관심이 서로 다른 세 인물의 상호 관련성이 이 작품의 구조와 주제를 이룬다. 조이스는 스티븐의 입을 빌어 개진한 그의 미학이론에서 예술가의 사명은 “미의 리듬”의 표현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리듬”의 의미를 “어떤 미학적 전체에서 부분과 부분간의 관계 또는 미학적 전체와 그 부분간의 관계로, 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형식적인 미학적 관계 . . .”(P 206)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조화”(consonantia, harmony)(P 212)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리듬의 이론이 『율리시즈』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다. 세 고리 중에 어느 한 고리도 빠지면 안 되는 라캉(Jacques Lacan)의 “보로메오 매듭”(Borromean knot)(Evans 18-20)적인 이 세 인물의 관계를 두고 학자들이 삼위일체 또는 3인 1조라고 일컫는(Peake 122)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들 세 인물이 하나가 되어 리듬을 연출하는 이 텍스트에서 배설적 이미지는 세 인물의 각각 다른 성격과 관심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인물창조의 원리의 하나로 쓰여졌다 할 것이다. 그 날 아침 블룸이 메마른 정원을 지나면서 정원을 제대로 가꾸는 데는 쇠뿔거름이 최고라고 생각했듯이 조이스는 척박하게 보이는 세계문단을 풍성하게 일구려면 그의 야심작 『율리시즈』에 배설적 이미지리의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보았는지 모른다.

<충북대>

인용 문헌

<Primary Sources>

- Joyce, James. *The Critical Writings of James Joyce*. Ed. Ellsworth Mason an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2. (CW로 줄여 씀)
- _____.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Text, Criticism, and Notes*. Ed. Chester G. Anderson. The Viking Critical Library, 1977. (P로 줄여 씀)
- _____. *Finnegans Wake*. New York: Viking, 1974. (FW로 줄인 뒤 쪽수와 행수를 적음)
- _____. *Ulysses: The Corrected Text*. Ed. Hans Walter Gabler, et al. Penguin Modern Classics, 1986. (U로 줄인 뒤 장수와 행수를 적음)
- _____. *Selected Letters of James Joyce*. Ed. Richard Ellmann. New York: Viking, 1975. (SL로 줄여 씀)

<Secondary Sources>

- Blamires, Harry. *The New Bloomsday Book: A Guide through 'Ulysses'*. London: Routledge, 1989.
- Budgen, Frank. *James Joyce and the Making of 'Ulysses' and Other Writings*. London: Oxford UP, 1972.
- Cheng, Vincent J. "Goddinpotty": James Joyce and the Language of Excrement," *The Languages of Joyce: Selected Papers from the 11th International Symposium, Venice, 12-18 June 1988*. Ed. R. M. Bollettieri Bosinelli, et al. Philadelphia an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2, 85-99.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New York: Oxford UP, 1982.
- _____. *Ulysses on the Liffey*. New York: Oxford UP, 1972.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1996.
- Freud, Sigmund. *Three Essays on the Theory of Sexuality*.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Basic Books, 1962.
- Gifford, Don with Robert J. Seidman.. *'Ulysses' Annotated: Notes for James Joyce's 'Ulyss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9.
- Hart, Clive, "The Sexual Perversions of Leopold Bloom," *Ulysses: Cinquante ans apr'es*. Paris: Didier, 1974. 131-136.
- Johnson, Jeri. "Explanatory Notes" to James Joyce *Ulysses: The 1922 text*. Ed. with an Introduction by Jeri Johnson. Oxford: Oxford UP, 1993, 763-980.
- Kiberd, Declan. *Notes to James Joyce "Ulysses": Annotated Students' Edition*. Ed. Declan Kiber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Penguin Books, 1992, 941-1195.
- Lowe-Evans, Mary. *Crimes Against Fecundity: Joyce and Population Control*. Syracuse: Syracuse UP, 1989.
- Peake C. H. *James Joyce: The Citizen and the Artist*. Stanford: Stanford UP, 1977.

Schwaber, Paul. *The Cast of Characters: A Reading of 'Ulysses'*. New Haven: Yale UP, 1999.

Shechner, Mark. *Joyce in Nighttown: A Psychoanalytic Inquiry into 'Ulysse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4.

Tucker, Lindsey. *Stephen and Bloom at Life's Feast: Alimentary Symbolism and the Creative Process in James Joyce's 'Ulysses'*. Columbus: Ohio State UP, 1984.

Abstract**Joyce's *Ulysses* : Aesthetics of Excremental Creation**

Sheon-Joo Chin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James Joyce's use of excremental imagery in *Ulysses* in accordance with his definition of art that "Art is the human disposition of sensible or intelligible matter for an aesthetic end." Toward that goal, the reactions of the book's three main characters to the excrements and eliminatory activities were examined in order of appearance.

Upon examination, Stephen Dedalus was concerned with the theological problems and artistic endeavors of creation as well, while Leopold Bloom focused more on the practical aspects of the excremental act, as well as his domestic suffering, especially that caused by his only son's early sudden death. Molly Bloom, Bloom's voluptuous wife, was indulged in planning to satisfy her sexual desire by resolving her husband's sexual apathy, which had lasted since their son's loss.

As is evidenced in the scrutiny, each figure reveals his or her own characteristic features in terms of structure of consciousness, or pattern of life. Accordingly, it appears that Joyce used the eliminative images as a compositional principle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three principal figures appearing in *Ulysses*, which is generally regarded as a Trinity from the standpoint of its subject and structure.